

논문접수일 : 2012.04.06

심사일 : 2012.04.13

게재확정일 : 2012.04.26

19세기 이후 궁중예단패물의 디지털화 연구

The research of digitalization
of the Imperial wedding Jewelry of 19th century

정 아 영

인덕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전임강사

Chung a-young

Induk university

* 본 논문은 2011년도 인덕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에 의한 결과임

논문요약

조선시대 왕실의 물품목록인 '궁중발기(宮中發起)'는 궁중의례에 쓰여진 장신구의 예장형식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후기 궁중예단패물에 나타난 문양에 관한 연구로 '궁중발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영친왕비 장신구 문양과 연계하여 고찰하였으며 패물에 나타난 주된 문양을 2D 디지털화 하여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중발기'에 기록된 예단패물류 가운데 패식에 표현된 문양, 재료, 형태 등을 조사하였고 영친왕비 패물 가운데 조형성이 뛰어나고 문양요소가 풍부하여 디지털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노리개 7점을 선정하여 그 세부 조형을 살펴보았다. 패식 패물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양으로서 미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2D로 디지털화하고 현대적 패턴으로 도안화하여 주얼리 제품 디자인에 활용하여 산업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궁중발기(宮中發起), 장신구(裝身具), 수식(首飾)

Abstract

'宮中發起'(Gungjoongbalgi) is a court publication in which the list of commodities and quantities for court ceremony are recorded and is also written as '궁중발기' in Korean or '宮中件起' in Edueo. Since it is a document recorded by court ladies when they are performing tasks, Balgi can be considered as the historical record that most closely describes the practical and actual features than other documents such as Jeongrye and Uigue. Therefore, from Balgi, we can see various court ceremony, dress and accessories for each subdivision of season, and various kinds of devices. Today, most of Gungjoongbalgi are possessed in Jangseogak and only parts of them are in Gyujanggak and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e 950 pieces of Balgi possessed in Jangseogak are the record of 100 years from the Gwanryebalgi of Hyomyung prince in 1819 to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us most of them are related to court ceremonies since 19th century. Amongst them, this study focuses on the Balgi record of Wedding presents and jewelry for royal marriage and expressed main patterns in 2-dimensional space. Through

a review on traditional woman accessories, the study provides a pattern data to conserve the original form of traditional culture and to build up basic data for cultural industry.

Keyword

Gungjoongbalgi, Imperial princess YEONG, Jewelry

1. 서론

1.1. 연구목적

'궁중발기(宮中發起)'는 궁중 행사에 쓰일 예정이거나 쓰인 물품목록과 수량 등을 적어놓은 궁중문서로서 한글로는 '궁중발기'나 '궁중발기' 이두어로는 '宮中件起'라고도 한다(이명은, 2003, p.7). 궁녀들이 실제로 일을 진행하면서 기록한 문서이므로 정례나 의례 등의 여러 문헌 가운데 발기가 가장 직접적이고 실상에 가까운 사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궁중의 각종 행사, 절기에 따라 소용된 의복과 장신구, 기물 등의 종류 등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궁중발기'에 기록된 패물은 한 개인의 기호품이라기보다는 궁중의례에 적합한 예장을 위한 장신구로써 궁중행사와 예장형식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궁중발기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부가 규장각과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장서각에 보관된 950 여 점의 발기는 1819년 효명세자 관례발기부터 한일합병까지의 약 100여년의 기록으로 대부분 19세기 이후 궁중행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국혼관련 예단패물이 기록된 발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패물에 나타난 주된 문양을 2D화 함으로써, 문헌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궁중 문서를 현대어 표기인 '궁중발기'나 한자어 표기인 '宮中發起' 대신 장서각 소장의 문헌 제목에 가장 많이 사용된 '궁중발기'로 칭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장서각 소장의 '궁중발기'를 바탕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궁중발기'에 기록된 예단패물류 가운데 패식을 중심으로 시기별 그 종류와 수량을 조사, 분류하고

자한다.

둘째, 패식에 표현된 문양을 조사하고 조선시대 그 문양이 가진 상징의미에 대해 연구하고자한다.

셋째, ‘궁중불기’는 문헌으로써 문양이 그림이 아닌 용어로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궁중불기’와 동시대에 유행한 복식과 공예품에 표현된 문양이나 국말 상의원 소속 장인들에 의해 제작된 영친왕비 장신구 문양과 비교해봄으로써 ‘궁중불기’에 기록된 문양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동 시대에 유행한 문양이나 기법은 복식, 공예, 회화 등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간접적인 유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영친왕비 장신구 역시 조선 말기 유물이지만 학자들에게 궁중정례에 따라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으로써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패식과 동 시대에 보이는 문양을 2D로 제작하고자한다. 제작에 있어서는 먼저 형태를 도안화하고 그 가운데 문양을 추출한다.

2. ‘궁중불기’에 기록된 패식패물

장서각 소장의 ‘궁중불기’ 가운데 국혼관련 예단패물 목록이 보이는 사례는 효명세자(후의 익종)와 조씨(후의 신정왕후)의 가례(1819), 현종과 경빈 김씨의 가례(1847), 고종과 명성황후민씨의 가례(1866), 순종과 순정효황후윤씨의 가례(1906)와 관련된 것이다. 기록된 예단패물은 크게 착용 위치에 따라 頭飾과 佩飾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양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패식 가운데 하나인 노리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궁중불기에 나타난 노리개로는 하나의 노리개로 구성된 단작노리개와 세 개가 하나로 묶인 삼작노리개가 있다. 삼작의 경우는 같은 형태를 같은 재료로 만든 것과 같은 형태를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든 것, 그리고 세 개가 모두 다른 형태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 가운데 같은 재료로 같은 형태를 든 것은 순금투호, 도금투호, 도금편복 등이 있으며 서로 다른 형태와 재료로 구성된 것은 밀화몽이·산호수·비취나 옥, 공작석으로 된 나비 한 쌍으로 조합된 형태가 대표적으로 대체로 산호·밀화·비취옥, 옥·자마노·공작석, 옥·자마노·비취옥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노리개로 표현된 대표적인 형태나 문양으로는 불수, 포도, 가자, 목련, 선도, 부어, 낭자, 호로, 편복, 동자, 장도, 용각패, 수복강령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장도는 본래 여인들이 평상시 실용적 상징적 목적으로 지녔던 소지품이었으나 단작이나 삼작노리개 등으로 많이 꾸며져 착용되었다.

궁중불기에서 장도노리개에 사용된 재료를 보면 공작석, 비취옥, 산호, 금패, 밀화, 자마노, 수정, 금강석, 진옥, 니사 등이 단일로 또는 두 가지 재료가 혼합되어 제작된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재료가 사용된 것은 칼집과 칼자루를 다른 재료로 제작한 것이다.

이 밖에도 향을 틀에 넣거나 향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 제작한 각향, 발향, 줄향노리개와 비단에 수(繡)를 놓아 만든 향갑이나 향낭형태의 수(繡)노리개 등이 있다.

각향노리개는 작은 ‘합’과 같은 형태의 속에 향을 넣어 노리개의 장식부분으로 꾸민 것으로 불기에는 ‘마미(馬尾)각향과 옥을 투각하여 만든 ‘옥원향, 옥향, 비취향’, 그리고 니사로 만든 ‘니사소합, 소합’노리개 등이 나타나 있다.

3. 영친왕비 패물(英親王妃 佩物)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영친왕가의 복식 유물은 조선왕조 최후의 복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존하는 궁중 복식유물은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궁중의 의례복식과 평상복 그리고 이에 따르는 패물류가 일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데 일차적으로 가치가 있다. 또한, 그 종류의 다양성과 원형에 가까운 보존상태, 국말 상의원 소속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점 등에 있어서도 예술성 뿐 아니라 궁중 양식과 그 체제 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유물은 영친왕비의 위탁으로 1957년부터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오다가 1991년 한국에 반환됨으로써 조선왕실의 복식문화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영친왕가 복식 유물은 영친왕 내외가 1922년 4월 29일 순종황제와 윤대비를 알현할 때 착용한 의복과 패물이 중심을 이룬다. 의복은 총 79점으로 왕복이 17점, 왕비복이 36점, 왕손복이 25점이다. 패물류는 총 73점으로 족두리 2개, 화관 1개, 멩기 2개, 첩지1개, 다리 1개, 가체 1개, 비녀 28개, 떨잠 5개, 앞꽂이 4개, 지환 2개, 금직 머리대 1개, 노리개 11개, 주머니 10개, 유소 1개 등이며 이 밖에 필낭 1개, 수저집 1개, 경대 1개 등이 있다.

왕복으로는 예복인 곤룡포를 비롯하여 이에 따르는 익선관·옥대·목화 등의 있으며, 평상복인 마고자·두루마기·저고리·바지·조끼 등이 전한다. 왕비복으로는 적의(翟衣)를 비롯하여 금직 당의·금직 스란단치마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적의는 왕비의 예복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이다. 이와 함께 적의 착용시 따르는 부속품 일체가 원형대로 보존되어있어 형태 및 착용상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부속품으로

는 패옥·후수·웃치마·폐슬·하피·옥규 등과 두식(頭飾)으로 가체를 비롯하여 금직 머리대·봉잠·용잠 등이 있다. 또한 진주염낭 등 여러 종류의 주머니는 중중 풍속의 일면을 보여준다. 왕손복으로는 자적용포와 사규삼·창의·복건 등이 있다(김영숙, 2002, pp.212-215).

영친왕비의 패물 가운데 조형성이 뛰어나고 문양요소가 풍부하여 디지털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 패식을 선정하여 그 세부 조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패식패물(佩飾佩物)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장식문양이 있어 선정한 패식유물은 총 노리개 6점이다.

3.1.1. 동자삼작노리개(童子三作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0

산호·공작석·밀화로 만든 동자형태의 주체와 오색술과 매듭으로 꾸며진 삼작노리개이다. 동자형태는 다소곳이 서있는 모습이 음각되어 있다.

3.1.2. 주머니삼작노리개(주머니三作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1

자마노로 만든 주머니 형태의 주체와 오색술과 매듭으로 꾸며진 삼작노리개로 진주 띠돈(帶金)을 하고 있다. 주체인 주머니형태의 중앙에는 매화가, 가장자리에는 파초선(芭蕉扇), 옥적(玉笛), 서각(犀角), 은정(銀錠)이 음각되어 있다. 매화는 꽃술부분에 꽃술 대신 수(壽)자문이 장식되었고 꽃잎에는 박쥐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이 노리개는 영친왕의 형 이강(李瓘)공의 부인 효영(孝榮)씨가 1941년 영친왕비에게 선물한 노리개 중 하나이다.

3.1.3. 백옥쌍룡문노리개(白玉雙龍紋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5

쌍룡이 조각된 장방형의 백옥판으로 된 주체와 붉은술과 매듭으로 꾸며진 단작노리개이다. 장방형의 백옥판 중앙에는 수자가 놓이고 그 양쪽에 쌍룡이 음각되었으며 그 주변에는 서운(瑞雲)이 투각되어 있다. 또한 백옥판 위에는 보석과 금속장식이 있는데 옥판을 물고 있는 영지형태의 금속장식 위에는 비취모를 붙였다. 옥판의 위아래로는 진주 2개를 물렸고 그 가운데는 홍파리와 청파리를 감입하였다.

3.1.4. 백옥쌍나비노리개(白玉雙蝶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6

백옥판에 나비가 투각된 주체 2개와 붉은술과 매듭으로 꾸며진 단작노리개이다. 백옥판 위에는 나비형태

를 꾸미는 보석과 금속장식이 있다. 나비의 몸통에는 산호와 공작석을 영지형태의 난집으로 감입하였고 날개의 네 모서리에는 각각 진주를 부착하였다. 또한 날개의 무늬 위에는 비취모를 붙여 장식하였다. 이 노리개는 영친왕의 형 이강(李瓘)공의 부인 효영(孝榮)씨가 1941년 영친왕비에게 선물한 노리개 중 하나이다.

3.1.5. 니사향갑박쥐노리개(泥絲香匣蝙蝠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7

박쥐형태의 니사(泥絲) 향갑(香匣) 두 개를 주체로 하고 붉은술과 매듭으로 꾸며진 단작노리개이다. 향갑의 표면에는 굵은선으로 박쥐가 표현되어 있는데 박쥐는 비취모를 붙여 꾸며져 있다. 향갑을 물고 있는 부분은 매죽문(梅竹紋)장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위에 역시 비취모를 붙여 장식하였다. 향갑의 안에는 붉은 천으로 짠 향이 넣어져 있다.

3.1.6. 밀화불수노리개(蜜花佛手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50

불수(佛手:불수감나무의 열매)형태의 밀화덩이를 주체로 하고 황색술과 매듭으로 꾸며진 단작노리개이다. 밀화덩이 위에는 모란꽃과 2마리의 박쥐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상부에는 밀화덩이를 물고 있는 모자형 금속장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취모를 붙였다. 금속장식의 문양은 매화와 잎사귀가 표현되어 있고 매화의 꽃술부분에는 산호를 감입하였다. 백옥판으로 된 원형의 띠돈이 있는데 그 위에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용이 투각되어 있다.

3.1.7. 자마노수정장도노리개(紫瑪瑙水晶長刀手佩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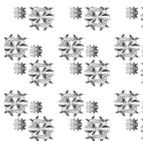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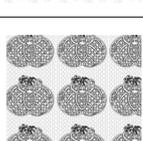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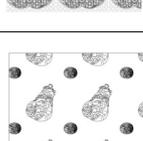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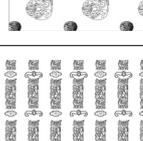
유물번호: 장신구-144

두 개 이상의 보석을 이용하여 만든 장도형 노리개로 장도의 중간 부분에 광다회(擘)을 연결하였는데 광다회의 양쪽에는 연두색의 선이 있고, 중간에는 홍색과 주황색의 선이 들어 있다. 푼사의 양끝을 끈목으로 짜서 달았다. 장도집 윗부분의 은세공 부분 박쥐에는 파란(瑠璃)을 입혔다. 장도에 붙어있는 것가락 면에는 파란을 입힌 작은 이화문(梨花紋)이 장식되어 있다. 백수정(白水晶)과 자마노(紫瑪瑙)로 만든 장도노리개는 백수정 손잡이 속에 구멍을 뚫어 금도금된 은사를 세공하여 보상당초문을 넣었는데 당초문의 하단부는 비취모로 장식하였다.

3.2. 패식패물(佩飾佩物)의 디지털화(2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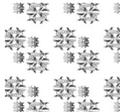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패식패물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양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을 2D로 디지털화함으로써 문화원형의 디자인 복원을 시도하였다. 제작된 2D자료의 디자인 활용을 위해 원형 가운데 문양 부분을 추출하여 총 7점을 현대적 패턴으로 도안화하고 주얼리 제품 및 산업 제품 디자인에 활용하여 산업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유물명	유물사진	패턴
동자삼작노리개 (童子三作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0		
주머니삼작노리개(주머니三作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1		
백옥쌍룡문노리개(白玉雙龍紋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5		
백옥쌍나비노리개(白玉雙蝶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6		
니사향갑박쥐노리개(泥絲香匣蝙蝠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7		
밀화불수노리개(蜜花佛手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50		
자마노수정장도노리개(紫瑪瑙水晶長刀手佩飾)		
유물번호: 장신구-144		

[표 1] 패식패물 문양의 디지털 패턴화

추출문양	주얼리 제품
------	--------

	 	
자마노수정장도노리개(紫瑪瑙水晶長刀手佩飾)		
백옥쌍나비노리개(白玉雙蝶佩飾)	 	
니사향갑박쥐노리개(泥絲香匣蝙蝠佩飾)	  	
백옥쌍룡문노리개(白玉雙龍紋佩飾)	   	
기타 문양 혼합	   	

[표 2] 주얼리 제품 디자인 활용 예 및 비교

3.3. 산업화 가능성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문양은 보편적이고 고유화 된 디자인으로 전통문화 원형의 복원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 또는 산업적 활용을 위한 문화콘텐츠로 경험 되어져야 한다. 1차적인 패턴화에서 시작하였으나 궁중예단패물에 나타난 혼례의 상징성은 현대에도 다양한 콘텐츠 소재로 개발 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징을 소비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혼례관련 상품의 개발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궁중예단패물의 문양별 사물 적합성을 분류하여 상품의 기획과 제작에 있어 문화콘텐츠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19세기 이후 궁중예단패물을 연구주제로 하며 이를 위해 『궁중별귀』와 실제유물인 영친왕비 패물을 비교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19세기 이후에 궁중혼례에 사용된 여성패물 가운데 패식인 노리개의 전체적인 종류와 명칭, 문양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노리개 가운데 조형적 가치가 있고 오늘날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도가 높은 문양을 선정하여 2D화 함으로써, 문헌연구를 통한 궁중여성패식에 대한 고찰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산업과 현대장신구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궁중별귀』와 영친왕비 패물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궁중별귀』는 19세기 이후의 혼례에 관한 기록으로 시기의 폭은 넓지 않으나 다른 문헌에 비해 많은 종류의 패물류가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용한 다양한 종류의 패물을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실제 사용 예'를 기록으로 보여주어 정확한 고증자료로서 연구에 큰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궁중별귀』는 어디까지나 문헌자료이며 기록되어있는 패물의 대부분이 실제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된 패물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존유물인 영친왕비 패물과 문헌에 나타난 패식들을 비교를 통해 당시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소재로 영친왕비 장신구를 선택한 이유는 패물의 착용자와 착용시기가 명확하며, 궁중유물로서 국말 상의원 소속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점 등 당시를 대표하는 패물로서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영친왕비 패물은 개화기 이후의 유물이지만 궁중의식용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엄격히 지켜진 궁중복식 정례(定例)에 따라 전통적 형태나 기준에 맞추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종류의 다양성과 원형에 가까운 보존상태 등에 있어서도 예술성 뿐 아니라 궁중 양식과 그 체제 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장신구 교육에 있어 서양식 디자인과 제작기법에 익숙하여 디자인과 조형성에 있어서 한국적 감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낌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전통문화 원형을 연구하여 문화콘텐츠화하고 이를 문화산업에 활용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장신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현대장신구 디자인의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시도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일가복식』. 서울 : 국립고궁박물관.
- 김용숙 (1987).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서울 : 일지사.
- 박혜진 (2006). 『궁중발기의 여자 패물 연구, 韓國의 服飾文化史』.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pp.449~463.
- 유희경 (2002).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명은 (2003). 『궁중별귀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 12·13.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참고사이트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